

# 北노동자 손길로 완성된 자수화

국제갤러리 '팬텀 풋스텝'展...함경아 자수회화 10여점 전시

기약할 수 없는 작업이었다. 1년이 걸릴지 1년 반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중간에 '작품'이 실종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원래 의도와는 다른 '그림'이 오는 경우도 많았다. 작가 함경아(49)의 '자수 회화'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우여곡절이 담겨 있다. 제3의 중간자를 매개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디지털 이미지의 회화 도안을 보내주면 북녘의 이름 모를 공예가들이 한땀 한땀 자수를 놓아 완성해 작가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작가가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진 지 오래지만 익명의 북녘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보내 이를 다시 받아 완성하는 과정은 새로운 시도며 이 때문에 작업 과정 자체가 묘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작가는 2008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과거 서울 자신의 집 앞에서 북한 전단(빠라)을 발견했던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고백한다. 자수 도안을 북에 보내는 행위는 '빠라'와도 사뭇 비슷하다. 국제갤러리에서 6년 만에 국내 개인전

을 여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화려하고 다양한 이미지 속에 텍스트를 섞은 작업을 선보인다.

"Are you lonely, too?" (당신도 외롭나요?), "Big Smile" (함박웃음), "Thou, If you are like me (그대여, 나와 같다면)", "Imagination is a political matter" (상

**디지털 도안 보내면 北서 수작업  
"보이지 않는 관계망 그렸죠"**

상력은 정치적 문제다), "처음에는 암흑이에요" 등 대중가요 가사나 다소 민감한 문구도 보인다. 화려하면서 정교한 자수 회화는 영국 리버풀 비엔날레를 비롯해 해외 행사에서 여러 차례 선보인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 여러 작품을 한꺼번에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대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예술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것도 아마도 제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관계망이랄지, 긴장감, 상상력

같은 것..." 국경을 돌고 돈 자수 회화에는 보이지 않는 상상력과 이야기가 듬뿍 담겨 있다. 작가는 이어 "익명의 타자들에 의해 한땀 한땀으로 존재하는 '그것들'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했다"며 "클릭 한 번 하면 수많은 정보를 받아보는 디지털 시대에 저는 아날로그 방식의 노동집약적이지자 가장 느린 매체인 자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국제갤러리 2관과 3관에 동시에 펼쳐지는데, 2관에는 문구와 이미지가 뒤섞인 시리즈가, 3관에는 5개의 대규모 상들리에 이미지의 자수회화 연작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상들리에'가 걸려 있다. 작가는 "상들리에에는 서구열강의 상징적 공간에 권위와 욕망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구조물"이라며 "그 속에는 거대한 담론이 자리 잡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락하는 상들리에를 통해 우리가 고정불변하다고 생각하는 거대 이념이나 사상의



불완전성을 은유한 것이다.

전시명 '팬텀 풋스텝(Phantom Footsteps)'은 유령이 남긴 발자국이라는 뜻이다. 전시는 7월 5일까지. (02) 3210-9873 이향희 기자